포천반월아트홀 22일부터 전시

제2회 경기도 평화통일 미술대전

한국미술협회 경기북부지부협의회(집행위원장 방두영)가 전국공모전을 실시하여 엄선한 작품을 전시하는 제2회 경기도 평화통일미술대전 특선작 이상 작품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민족분단을 상징하는 DMZ를 예술의 주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자 평화·통일을 미술로 표현한 이번 행사는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회 경기도평화통일미술대전에서 대상수장작품은 서예부문 김해경씨의 소곡선생 통일환경시이며 최우수상은 한국화 부문 윤규섭씨의 임진각 철마는 달리고 싶다, 문인화 부문 전병욱씨의 석란이며 우수상은 서양화 부문 김정선씨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의 글, 공예부문 김창섭씨의 가슴속으로, 조소 부문 박성민씨의 고요한 외침, 디자인 부문 구다휘,이예진씨의 친구야! 들리니, 문인화 부문 공명화씨의 연 등이다.

제2회 경기도 평화통일미술대전 방두영 집행위원장은 "이번 대전이 한국을 넘어 세계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꿈과 이상을 한데 뭉쳐 세계 평화미술의 구심적 역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연+사람+미술의 어울림 展

포천 美協 12일부터 포천반월아트홀 전시관

자연과 사람이 만나 어울리며 사는 청정지역 포천으로 미술 예술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인접시군 미술인들의 작품을 초대한 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지부장 황행일)가 자연과 미술이 어울리는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미술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한국미술협회 경기북부협의회가 후원하고 참가단체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미술협회 및 단체 등이다.

전시는 제1부 현대미술분야로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판화, 디자인, 조소 등은 1층에서 전시하고 제2부 서예분야는 서예, 문인화, 민화, 전각, 서각 등은 2층에서 전시한다.

황행일 지부장은 "포천시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술문화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강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38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허성은 허조의 조카다. 허성 역시 이조판서를 지냈는데, 그가 판서로 있을 때 직무에 충실하고 正道를 걸었으므로 아무도 청탁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는 청탁을 싫어하여 청탁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었다.

어떤 관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왕이면 호남이나 영남으로 가기를 청했다. 그가 허조에게 청탁을 하자 허조는 오히려 북쪽으로 발령을 냈다. 또 도성의 관리를 청탁했을 때는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벼슬을 탐내고 녹봉에 집착하는 일은 선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늙을수록 더욱 심해져서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도 반성할 줄 모른다면 더욱 더 부끄러운 일이다."

허성이 병이 들어 흥천사(興天寺)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평소 검소하여 대나무 베개와 부들자리를 바닥에 깔고 지냈다. 또 찢어진 망건에 짧은 적삼을 입고 생활하였는데, 언뜻 그 모습을 보면 쓸쓸한 시골 늙은이 같았다.

그때 유씨 성을 가진 선비가 흥천사를 찾아왔다. 그는 새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절에 와서도 교만을 떨며 과거에 합격한 것을 뻐겼다. 하루는 승방에 이르니 초라한 늙은이 하나가 구운 흙덩이처럼 혼자 앉아 있었다. 선비는 대스럽지 않게 여기고 곧장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거만하게 앉아 늙은이에게 물었다.

"노인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성이 대답도 하기 전에 선비는 갑자기 노인의 벼루와 붓을 빼앗아 먹을 듬뿍 묻혔다. 그러고는 붓을 휘들러 벽에 시 한 구절을 적었다.

'계수나무 숲의 한 가지요, 곤산(崑山)의 한 조각 옥이라.'

그 구절을 본 허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촌(寸)이라는 글자는 아마 편(片)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 하오"

선비가 눈이 휘둥그래지며 놀라 물었다. "노인장께서도 글을 아십니까?" "거칠개나마 조금 알고 있소."

그러나 선비는 한참동안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이내 방에서 나왔다.

그때 관복을 입은 관리 한 사람이 걸어오다가 선비를 보고 물었다.

"이조판서께서는 잘 계시는가?"

선비는 그만 까무러칠 뻔하였다. "그럼 저기 있는 늙은이가 ……?"

선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식은땀을 흘리며 달아나 버렸다.

허성은 이조판서로 있다가 부모의 삼년상이 끝나고 다시 복직하였다.

그때 허성은 문득 거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외쳤다.

"아아! 내 늙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 줄은 몰랐구나!"

허성은 곧 사직하고 다시는 벼슬에 나오지 않으니 그때 그의 나이 60여세였다.

허성(許誠)

1382년(우왕8) ~ 1441년(세종23). 본관은 하양(河陽)이며 자는 맹명(孟明)이다. 한성부판윤을 지낸 허주(許周)의 아들이다.

1402년(태종2)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事)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을 거쳐 사간원 우정언이 되었다. 그뒤 형조, 예조, 병조의 좌랑을 거쳐 1411년 지평에 올랐다. 여러 벼슬을 거쳐 1431년 대사헌에 올랐고, 곧이어 형조참판과 예조참판을 지낸 뒤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1435년 예조판서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이듬해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1438년 중추원사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1440년 예문관대제학에 이르러 병으로 사임하였다.

성격이 강직하고 불의를 못 참았으며, 총명함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에세이 - 수박예찬

김순진 수필가
월간 스토리문학 발행인
도서출판 문학공원 대표

붉기야 논개의 정신이 이보다 더 붉으랴, 푸르기야 일송정 푸른솔이 이보다 더 푸르랴!

찌는 듯한 여름을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푸른 바다에서의 해수욕일까? 소나무 푸른 숲속에서의 캠핑일까? 에어컨일까? 아이스크림일까?

지난 날, 중학교에 다녀온 까까머리 나에게 어머니는 등물을 해주시고,우물 속에 밧줄로 묶어 담가둔 수박을 달아 올려 쪼개어 내게 한 덩어리를 떼어 주시며 '니가 우리 집 기둥이여!' 하셨지.

그때 수박 맛은 에어컨을 씽씽 돌리며 앉아서 먹는 아이스크림 맛으로는 죽어도 못 당할 게다.

어머니는 인애하신 모습으로 사랑스런 아들이 수박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키워가곤 하셨지.

옛날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김시민 장군과 의병들이 왜놈들을 무찌르다 피가 땅에 배어서 지금도 수박속이 빨간 것일까? 조헌 장군과 700여명의 의병들이 피 비린내 나는 전투로, 권율 장군이 아낙네들과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다 왜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6.25동란의 피 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밴 핏물이 수박에 배어들어 속이 빨간 것일까?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이겼을 때, 아마도 그 강의 핏물은 온 삼천리강토를 물들이고도 남았으리라. 어쩌면 우리 민족은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피를 통하여 나라를 수호하였기에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축구를 응원하는 공식 응원단의 붉은 악마라는 명칭도, 그리고 붉은 유니폼을 좋아하는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도 어쩌면 수박에 배어있는 민족혼과 일맥상통하는지 모를 일이다.

달기는 왜 단것일까?

옛날 얘기 속에 나오는 호랑이가 '떡 하나 만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엄마를 잡아먹고, 철이와 순이마져 잡아먹으려 할 때, 미루나무 위로 올라 새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철이는 해가 되고 순이는 달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썩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 사탕수수 밭에 떨어져 수수깡에 피가 묻어 빨갛게 되었고, 수수깡의 단맛이 수박에 배어 속이 빨갛고 달게 되었다나 뭐라나?

그러면, 수박껍데기는 왜 퍼렇고 검은 줄이 있을까?

옛날, 농부가 원래는 평지에 있는 논이나 밭에 수박을 심었는데, 어찌나 아이들이 서리를 많이 해먹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그 농부는 궁리 끝에 수박을 소나무 숲이 있는 산과 산 사이에다 잘 보이지 않도록 심었더니 수박 껍질에 물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등산 수박이요, 고창 산수박의 원조라나 뭐라나?

여름철 과일은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 대장이다. 복숭아, 자두, 참외, 포도 등 모두들 자신이 대장이라 하겠지만, 어떤 과일 가게고 수박이 진을 치고 앉아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덩치가 한 몫 하는 원인도 있으리라. 쪼잔한 자두, 복숭아, 살구 몇 알, 포도 몇 송이보다 수박 한 덩어리의 군림은 곽제우 장군이나 임경업 장군의 포효 같다.

또한 수박 한 덩어리를 쪼개어 놓으면 최소한 너댓명 이상의 입이 즐겁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리라. 그것은 어쩌면 상징성이리라. 비치볼을 수박 무늬로 하고 비키니 수영복을 수박 무늬로 하는 것은, 봄을 생각할 때 개나리와 병아리를 생각하고, 가을을 생각할 때 단풍과 귀뚜라미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리라.

찌는 듯한 뙤약볕 아래서 고추밭에 풀을 매고 들어온 농부에게 시원한 수박 한쪽을 건넨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리. 조기 축구회원들이 건강한 육체로 한 여름날 축구 시합을 하고난 뒤, 시원한 수박화채 한 그릇을 건넨다면, 그것은 정다움이라 말하리.

"사랑을 전하는 데는 내가 최고다"라고 수박은 스스로 자부하며 말한다.

친척집을 찾아 간다거나, 직장동료, 서로 서먹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수박 선물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박은 먹는 음식이기에, 음식을 앞에 놓고 싸울 수도 없고, 더욱이 수박을 먹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하기 때문에 입이 너털웃음을 웃는 모양이 되므로 절대 싸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수박은 초등학교 2학년생이 스케치북에 그려놓은 그림에서처럼 녹색과 검은 줄이 선명한 것은 아마도 김지하 시인의 '풀잎'처럼 늘 저항하고픈 사명 때문이리라. 선명하게 검은 줄은 민중을 세우려 뿌리내린, 어쩌면 가슴 저리도록 아픈 긴 밤을 지세우고 난 이침 이슬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수박이 그 무더운 여름 위에 우뚝 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대양 육대주를 포함한 물과 껍질과 같은 지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구는 둥글고, 둥근 것은 모난 것의 스승이요,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 하지 않던가? 이르노니, 수박은 모든 기하학의 근본인 구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에 굴복한다.

수박의 정신은 둥근 구로서 세계를 감싸 안기 때문이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때문이요, 가장 중요함은 내면에 한민족의 붉디 붉은 민족혼과 피와 같은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8월의 독립운동가

박 열(朴烈) 선생(1902.2.3~1974.1.17)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박열 선생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902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교육과 신식교육을 받고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동참하여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나아가 귀향하여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와 격문을 만들어 살포하며 문경의 3·1운동을 촉발하여 민족독립의 의지와 열기를 분출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일본 본토보다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보다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반제이론을 수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도쿄에 도착한 뒤 정칙영어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저명한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을 직접 찾아가 교류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다.

더 나아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고학생들을 규합하여 의혈단을 조직하고, 조선고학생동우회에 참여하여 간부로 활동하였다. 1922년 초 평생동지이자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와 운명적으로 만나 반제 항일투쟁의 길을 같이 가게 되었다. 무정부주의단체인 흑도회에 참여하고, 그 기관지인 『흑도』의 발간 책임을 맡아 선전활동에 주력하며 항일운동을 편 것이다.

특히 식민체제 타도를 목표로 하는 의열투쟁노선을 천명하면서 1922년 말 직접행동 조직인 흑우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민중운동』·『후데이센징』·『현사회』등의 잡지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고, 서울·도쿄의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활동을 펴면서 민중의 권익신장에도 힘썼다.

다른 한편으로 1923년에는 흑우회와는 별도로 불령사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의열투쟁을 추진하여 갔다.

그해 가을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을 계기로 의열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하며 폭탄 반입 및 제조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23년 9월 관동대진재의 발생을 기화로 일제는 한국인들과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때 선생과 가네코 후미코를 비롯한 불령사 회원들도 피체되어 폭탄 반입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일왕 암살을 꾀한 '대역사건'으로 비화되었다.

1923년부터 1925년에 걸친 총 20여 회의 조사과정에서 선생은 일왕을 폭살하기 위해 폭탄을 구입하려 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나아가 사형 판결이 나자 선생은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맘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라고 일갈하였다. 불굴의 독립의지와 민족정신을 표출한 것이다.

이후 무기로 감형되었지만 일제 패망 이후에도 대역사범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다가 1945년 10월 27일에야 풀려났다. 실로 22년 2개월이라는 기나긴 옥고를 치른 것이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선생의 뜻과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여 관련자료와 사진을 8월 한 달간 전시하는 한편, 순국선열유족회에서도 이 달의 독립운동가 학술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72)

명판관(名判官) 홍태윤(洪泰潤)

'명관(名官)' '명판관(名判官)' 하면 내 고향 포천에서 이름을 드날렸던 분은 현감 홍태윤 님이었다.

현감 홍태윤님이 포천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허름한 옷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냇가에서 노인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담배만 피우며 한숨 짓는게 보였다. 그래서 홍태윤 현감이 그 노인에게 물었다. 무슨 걱정 근심이 있기에 그러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당신은 알 것 없소!' 하는 퉁명스런 말만 내뱉는게 아닌가? 그래서 다정한 말씨를 건네며 마음과 입을 열게 하니 다름이 아닌 외상 소 값을 못받은 억울한 사연이었다.

홍태윤 현감이 노인에게 관가(현청)에 가서 호소하면 될터인데 왜 혼자 끙끙대며 속을 썩이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노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 이 양반 보게나, 초록은 동색이지 그 놈도 관놈(官人:벼슬아치)의 자식인데, 관가도 관놈 편을 들지 내편을 들어주겠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복차림의 현감은 말했다.

"여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내일은 꼭 관가(현청)에 가서 고하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니 그리 하도록 하시오."

간곡한 당부를 들은 노인은 미복을 하고 민정시찰을 나왔던 현감의 말대로 이튿날 일찍이 관가에 가서 현감을 만나 소값을 받고 감사하며 몸둘바를 몰라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하루는 포천의 양반 선비가 관가에 찾아가 비아냥거리며 어제 뒷산에서 매사냥을 하다 잃은 매를 찾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홍태윤 현감이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청산에서 얻어 청산에서 잃었으니 청산에 물어 보아라. 청산이 듣지 않거든 청산을 잡아 오너라'

'고얀놈 청산아-양반의 매를 돌려주지 않다니- 청산을 잡아 오너라-청산을 잡아오면 내 혼내주리라-'

홍현감의 호령소리는 현청 대들보를 들썩이게 컸으며 매 잃은 선비는 그만 찔금 오줌을 싸고 꽁지가 빠져라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

원래 중인 출신으로 궁궐을 지키는 관속이었으나 신체가 장대하고 도량이 넓어 대장부다운 기백을 갖추었으며 명성왕후가 임오군란을 당하였을 때에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동생이라고 칭하면서 왕후를 업고 여주까지 피란시킨 공로로 영평현령-포천현감-양주목사에 까지 이른 인물이다.

국모를 국란에서 구한 별감 출신의 명관이자 명판관이었다고 한다.

홍현감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성을 다해 수행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근래에 KBS-TV를 통해 우리의 명판관 홍태윤 현감의 궁중근무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재미있었던 생각이 난다. 자랑스런 포천현감이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祝 詩協會館

(축 시협회관)

宿願多年會館成(숙원다년회관성)
여러해 우리의 간절한 숙원이 이루어져 회관이 마련되니

詩人翰士盡衷情(시인한사진충정)
시인과 여러 문인들의 충정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京鄕各處歡迎色(경향각처환영색)
경향각휘에서는 한결같이 모든사람이 환영하고

遠近村郊慶祝聲(원근촌교경축성)
원근 시골마을에서는 경축하는 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錦繡幃簾紋樣耀(금수위렴문양요)
비단으로 만든 휘장은 아름다운 문양이 빛나고

琉璃壁 日光明(유리벽유일광명)
유리들창은 햇빛이 밝기만 합니다

自來賀客常不絶(자래하객상부절)
스스로 찾아오는 하객들이 항상 많이지않으니

權域江山吉運亨(근역강산길운형)
무궁화 피는 이 강산엔 좋은 일이 이어지겠습니다

양 재 창
포천향교 전교